

2020년 10월 04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0편 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 ◎ 찬 송 / 542장(통340) 구주 예수 의지함이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 말씀선포 / 전신갑주 09 - 믿음의 방패 - 믿음의 갑주

1세기 로마 군인의 방패는 군인과 뗄 수 없는 갑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가야하는 영적인 갑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끝까지 작동해야 합니다. 고린도 유적지에는 흥미로운 조각품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이 시신이 되어 돌아올 때 그를 방패 위에 얹혀놓은 장면입니다. 그의 몸은 긴 방패 위에 놓여 있고, 그의 손 방패는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패들은 죽은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였을 것입니다. 방패는 군인이 전투하는 동안은 온 몸을 보호하는 도구이며, 죽어서는 그가 누울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방패는 군인과 끝까지 함께 함을 보여 줍니다. 바울이 방패를 믿음과 연결한 것은, 믿음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성도의 온 몸을, 그의 신앙과 신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는 필수품이며, 심지어 죽어서도 그 믿음의 방패가 동행함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송된다는 의미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의 성도들을 삶을 지켜줍니다. 성도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동행은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는 더욱 소중한 갑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은 방패처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방패로서 믿음은 공동체가 하나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바로 교회는 적의 맹렬한 포화에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가정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온

식구가 같은 믿음의 방패로 방어한다면 적의 공격은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나만 혼자서 자기 한 몸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 같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로를 지탱하고 견디며 힘이 되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소멸되며, 그 민족은 보존되고 교회는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대와 오합지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같은 무기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한 몸처럼 전투합니다.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후자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싸움꾼이며 용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합지졸은 각각 다른 무기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눈앞에 있는 상대와 싸울 뿐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나서는 반드시 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군사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며, 성도의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6절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보여주는 영적인 전투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몸인 교회로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전술에 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강조되어야 하는 믿음은 혼자 믿고 구원을 얻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믿음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제시하는 “하나의 믿음”은 에베소서 4장 3~6절을 통해 더욱 확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고, 예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또한 주 예수가 한 분이시기에 믿음도 하나이다. 나아가 이 믿음이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도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 됨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먼저 정립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를 평안의 매는 줄로 엮여져 있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와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현상을 가져오는 교회의 하나 됨을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어서 성도들은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만유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방패로 설명할 때는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담고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특별한 내용은 적의 불화살을 방패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멸하다.”는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지 않는다는 뜻뿐만 아니라, 설사 불화살이 방패에 꽂혀도 불이 자동으로 꺼진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패에도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면 모든 군사들이 이 기능을 장착한 방패를 절대적으로 선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란, 이러한 기능이 장착된 특별한 방패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지켜주는 감주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영적인 전투에서도 방어 무기입니다. 만약 적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어 무기를 가지고, 적의 집중 포화를 받고도 끄떡없다면 더 이상 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런 방패가 과연 있었습니까? 당연히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토록 특별한 의미로 믿음의 방패란 표현을 사용합니까? 신약에는 방패란 단어가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방패가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시편 7편 10절에서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보호 수단을 방패라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6절도 다윗의 노래인데,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히 강한 방패를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열두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며 예언하는 장면인데, 열두 지파 각각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전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맛보는 행복은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면, 이는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절은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호와께서 직접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여호와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악한 자, 곧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를 위하여 방패처럼 맞는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여호와 자신이 방패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개념에는 여호와 자신이 친히 방패가 되어서 자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되심이 담겨 있습니다. 악한 자의 가장 강력한 불화살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방패에 꽃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의 부활로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방패에 꽃힌 불화살이 예수를 태운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보니 불화살이 소멸되고, 방패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반면 악한 자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방패 앞에서 자신의 최후 무기인 사망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56절**에서 바울은 사탄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조의 권능은 율법이라.**” 창세기 15장 1절이 기록될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어 이 세상에 드러난 비밀 곧 복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신 갑주로 소개하는 믿음의 방패는 예수의 구속 사역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린 사건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에게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 안에 머물게 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 안에 있는 성도는 안전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적의 어떠한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믿음의 방패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믿음의 방패로 이 시대 악한자의 간계를 물리치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더욱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지키며 더욱 강한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546장(통399)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 폐 회 / 주기도문